



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연세대학교 교수
배 득 중

1. 서론

2007년도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재정관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는 근대화 이후 한국 재정의 준거 모형이었던, 일본에서도 아직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요원한 상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보다도 더 신속하고 이루어낸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에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10년 만인 새로운 회계제도가 전국에 확산된 것이다.

이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기본 틀은 마련이 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 제도에 의하여 산출되는 회계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다. 사실,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정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1) 국민들이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재정정보를 정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지출활동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하게 되었다.

2) 정부의 회계 및 재정활동보고서도 민간 기업에 뒤지지 않을 만큼 최고의 수준으로 작성되도록 요구받고 있다.

3) 정부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원가 통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행정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출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재정정보를 정확하고, 적실성 있게, 그리고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배득중, 2009)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 대하여, 정부는 민간과 다른 특성이 많으므로 민간형 회계제도를 만들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물론 있다. 즉, 정부는 매출행위를 하지 않고, 제조업체가 아니라 정책형성 및 집행을 하는 서비스업이며, 민간부문이 일을 잘 하라고 지원해주는 간접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민간형 회계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찬반양론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현실적인 데이터 없이 탁상에서의 당위론적 토론만 이루어져 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 제도가 구비되었으므로, 당위론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제도를 사용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얻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정부회계학회는 2008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회계공무원 연찬회”에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글이 이 조사에 기초하여,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유용한가, 유용하다면 어떤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은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된 정보가 더 잘 활용될 수 있으려면 어떤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조사 설계

(1) 모집단과 표본집단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236개 자치단체의 회계담당공무원이며, 표본은 2008년 12월 연찬회에 참석한 약 320명의 실무담당 공무원이다. 그러나 320명의 공무원 중 설문에 협조한 응답자는 89명으로서, 응답율은 27.8%이다.

응답자의 소속 분포는 광역시도 공무원이 7명(7.8), 인구 5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15명(16.9%),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공무원이 22명(24.7%), 군 공무원이 28명



(31.5%), 그리고 자치구 공무원이 17명(19.1%)이다. 이런 분포는 모집단의 구성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응답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응답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재직 연수는 평균 42.9개월인데, 최소 3개월에서부터 최대 15년까지 다양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할 기간 역시 최소 2주에서부터 최대 48개월로 편차가 컸다. 이들의 평균 복식부기 담당 기간은 17.5개월 (표준편차 12.6, N=86)이다.

(2) 설문조사 방법

전국 연찬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1박2일 동안 제주도에서 세미나, 교육, 토론행 등 집중적인 학습활동을 하였는데, 본 설문조사는 첫째날 4시간의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배포되어, 세미나 종료와 함께 수거되었다. 응답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설문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3) 설문의 구성과 주요 내용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잠재적인 유용성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쉽게 요약하면, 1)대외적으로는 투명하게 재정상황을 보여준다는 점과 2)대내적으로는 원가관리 등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들도 1)투명성 관련 질문들, 2)관리 목적의 정보 활용과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3)활용도를 낮추는 요인들과 4)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자들이 5)회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6)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경험과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3. 조사의 주요 결과

(1)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유용성: 전반적인 성향 파악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

만, 이것을 기존의 단식부기 회계정보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높겠다. 그래서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현재 단식부기결산과 복식부기결산이 병행 처리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정보가 동시에 산출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단식부기 정보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는데,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단식부기 회계정보에 비하여 “훨씬 더 유용하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45.8%를 점유하고, “더 유용하다”는 의견도 27.8%에 달하여서 긍정적인 평가가 73.6%에 달한다. 이에 반해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단식부기 회계정보에 비하여 “덜 유용하다”거나(2.8%), “훨씬 덜 유용하다”는 의견(1.5%)은 매우 적은 편이다.

<표 1>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 분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단식에 비하여				
	훨씬 더 유용하다	조금 더 유용하다	비슷한 정도이다	덜 유용하다	훨씬 덜 유용하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45 (52.9)	27 (31.8)	10 (11.8)	1 (1.2)	2 (2.4)
종합적인 재정상태 파악에....	51 (59.3)	26 (30.2)	7 (8.1)	1 (1.2)	1 (1.2)
재정운영 현황 파악에.....	45 (52.3)	25 (29.1)	13 (15.1)	2 (2.3)	1 (1.2)
재정 효율성 향상에.....	36 (42.4)	22 (25.9)	23 (27.1)	3 (3.5)	1 (1.2)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에....	37 (43.0)	24 (27.9)	24 (29.7)	0 (0)	1 (1.2)
예산절감에.....	27 (31.4)	17 (19.8)	35 (40.7)	6 (7.0)	1 (1.2)
사업별 성과 측정에.....	34 (39.5)	26 (30.2)	20 (23.3)	4 (4.7)	2 (2.4)
합 계	275 (45.8%)	167 (27.8%)	132 (22.0%)	17 (2.8%)	9 (1.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구성 백분비(%)임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유용할 것 같은 부분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식부기 회계정보는 1)종합적인 재정상태 파악과 2)재정운영 현황 파악에 있어서 단식부기 회계정보 보다 유용하며, 그 결과 3)재정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단식부기 보다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반면, 4)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재정효율성 향상과 5)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 그리고 6)사업별 성과 측정에 있어서도 단식부기 회계정보 보다는 유용하지만, 앞서 투명성 향상 관련 부문에 비하여서는 지지 강도가 다소 떨어진다. 특히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7)예산절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단식부기 회계정보와 비슷한 정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응답의 최빈치를 형성하고 있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아직 재무회계 보고서를 생성하는데 치중하고 있어서, 아직은 재정의 투명성 향상 부문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반면, 아직 원가준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사업과 예산 관리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 응답 결과에서 시사된다.

(2) 재정 투명성 향상과 복식부기 회계정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행정기관의 재정운영 현황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투명성 향상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는 실증적인 조사의 대상이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회계담당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귀하께서는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회계정보 중에서 흔히 재무회계라고 불리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가 투명성 향상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 (33.7%). 그리고 자치단체의 운영상태보고서도 재정투명성 향상에 기여한다.(23.3%) 그러나 뜻밖에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재정지출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투명성 향상에 재정운영보고서 보다 더 유용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31.4%)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은 정부의 성과에 언제나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과달성도 뿐 아니라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원가대비 성과달성도라는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업별로 “원가대비 성과달성도”라는 정보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사업별 원가 준칙 등 보완되어야 할 점이 아직 있다.

〈표 2〉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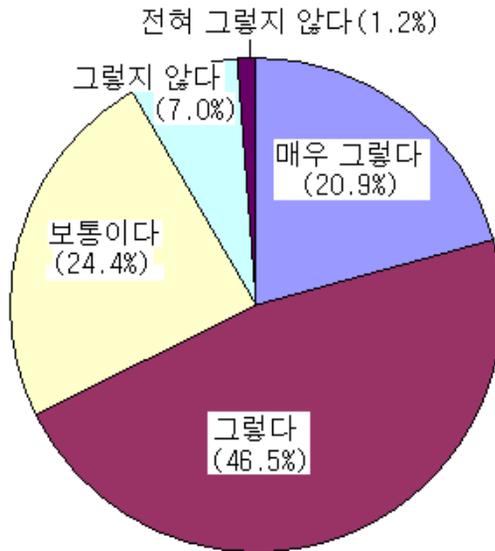
응답비율	응답항목
(33.7%)	①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 및 변동 정보
(23.3%)	② 자치단체의 재정운영현황(수익, 비용)의 현황 및 변동 정보
(31.4%)	③ 주요 재정지출사업의 성과에 관한 정보
(7.0%)	④ 재정·경제예측 및 재정사업의 위험성·불확실성에 관한 정보
(5.8%)	⑤ 재정분석 및 회계감사에 관한 정보
(0%)	⑥ 기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가 발전하면 미래의 위험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이 점도 아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재정이나 경제 예측, 그리고 재정사업의 위험성 및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가 재정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7.0%) 그리고 “재정분석이나 회계감사에 관한 정보”도 재정투명성 향상에 기여는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분석 자료를 이해하는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므로, 이 정보들은 투명성 향상이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유용성이 제약된다고 본다.(5.8%)

재정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는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시에 공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현재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설문하였다.

“귀하의 자치단체는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 회계정보 공개의 충분성과 적정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 적정 공개 여부에 대하여 회계담당 공무원의 4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0.9%는 “매우 적절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재무회계보고서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 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관리 목적에 유용한 복식부기 회계정보

앞서 언급하였듯이,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또 다른 용도는 그 정보를 각종 관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목적이 실무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탐구하기 위하여, 본 조사는 1)현재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어떤 관리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2)만약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한지, 3)복식부기 회계정보를 관리 목적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 설문하였다.

① 관리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 정보

복식부기 회계 정보는 아직 관리 목적으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재정분석 및 성과측정”에 활용한다(혹은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29.4%)과 “전반적인 행정경영 및 재정관리 지원 정보”로 활용한다는 응답(24.7%)이 많았다. 이는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원래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으로서, 관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부합되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최고관리층의 전략적, 거시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 하는데에는 활용도가 미흡하며(3.5%), “사업관리 정보”로 활용되는 정도도 부족하다(5.9%)는 의견이다. 이러한 지적은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아직은 고급 정책결정에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기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14.1%)과 “주민에 대한 대외홍보 자료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견해(15.3%)가 다소 있다.

〈표 3〉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관리 목적 활용 상황

응답항목	유효 응답자수	백분비
재정분석 및 성과측정에 활용	25명	29.4%
전반적인 행정경영 및 재정관리 지원 정보로 활용	21명	24.7%
주민에 대한 대외 홍보 자료로 활용	13명	15.3%
기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	12명	14.1%
기타	6명	7.1%
사업관리 정보로 활용	5명	5.9%
최고관리층의 전략적, 거시적 정책의사결정 지원에 활용	3명	3.5%
합계	85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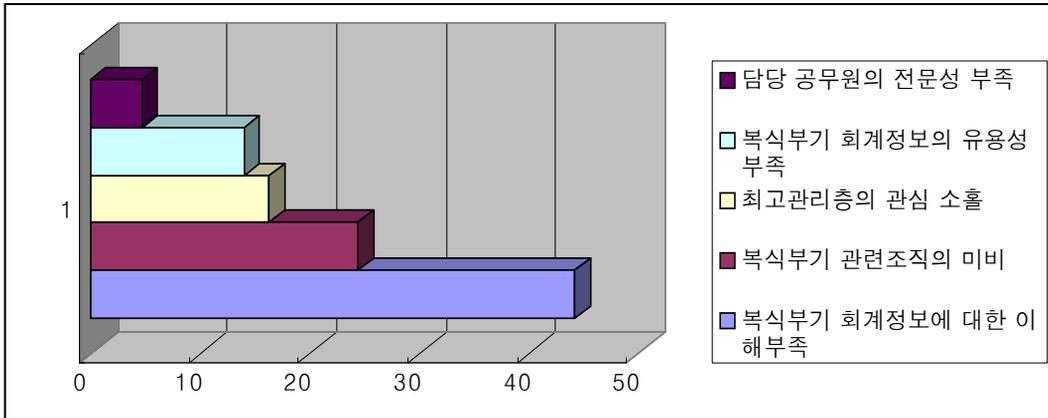
② 복식부기 회계 정보 활용의 장애 요인

본 조사에서는 연찬회에 참석한 회계담당 공무원들에게 복식부기 회계 정보의 활용을 저해 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장애 요인

질문: 만약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분포:



응답 결과를 보면, “복식부기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이 활용도를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응답의 44.2% 점유) 그런데 여기서 “이해 부족”이라는 것이 회계담당 공무원의 이해 부족인지, 사업관리 담당공무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 부족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활용도 저해 요인들 중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관리 담당자들이 복식부기 회계정보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회계정보들이 관리 목적에 사용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복식부기 관련조직의 미비” (24.4%)도 새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던 당시에는, 비록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복식부기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지고, 활용단계에 접어들게 되자 복식부기 팀을 해체하고 결산 조직에 통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복식부기 팀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공무원들 간에 기피 부서가 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이러한 인적, 조직적 상황 변화가 응답결과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최고관리층의 관심 소홀”이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이 요인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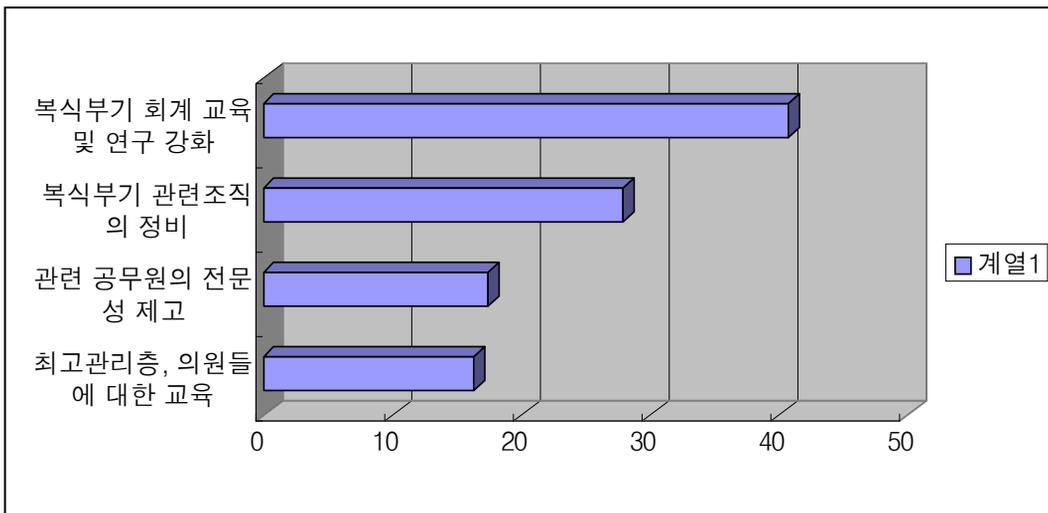
간 정도(16.3%)의 저해요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유용성 부족”을 저해 요인으로 지목하는 견해(14.0%)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 견해를 피력한 응답자들은 복식부기 회계정보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회계교육의 강화와 2)실제로 복식부기 정보가 단식부기 정보보다 우월한 유용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해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③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관리 목적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추천되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방안은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 (40.7%)이다. 새 회계제도를 관리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회계제도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예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활용도 제고 방안



“복식부기 관련조직의 정비” (27.9%) 역시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개선 조치 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특집호에서 별도의 주제로 다룬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응답자의 17.4%가 추천을 하였고, “최고관리층 및 의원들에 대한 회계 교육”은 가장 낮은 응답비율인 16.3%를 점유하고 있다.

(4) 담당공무원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 교육의 수요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실무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개선방안이 “회계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1)담당공무원들이 현재까지 어떤 경로로 회계교육의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고, 2)그렇게 획득한 회계지식이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지 설문하였다. 마지막으로 3)회계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교육방식을 선호하는지 질문하였다.

① 담당공무원의 회계교육 이수 경로

현재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회계교육을 대학교나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각각 6.5%와 3.3%) 그런 반면 각종 연수기관에서 회계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가장 많고(37.4%), 그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연수(19.5%)와 지자체의 연수(17.9%)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표 4〉 회계교육 습득 경로

교육 이수 기관	유효 응답자수 (복수응답)	백분비
고등학교에서	4명	3.3%
대학교에서	8명	6.5%
행정안전부의 연수 교육	24명	19.5%
지방자치단체의 연수 교육	22명	17.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수 교육	46명	37.4%
독학 및 자습	15명	12.2%
기타	4명	3.3%
합 계	123명	100.0%

이밖에 독학이나 자습을 통해 필요한 회계지식을 습득한 경우도 일부 있었고(12.2%), 이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의 방법으로 회계지식을 배운 경우도 얼마간 발견되었다.(3.3%) 설문조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회계담당 공무원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서, 박사학위 등을 수여 받는 경우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② 교육 받은 회계지식의 충분성

앞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지자체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주로 행정기관의 연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습득한 지식이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충분한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오직 9.3%만이 현재의 회계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90.7%에 해당하는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연수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③ 선호하는 회계교육 방식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계교육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 시행되는 집체 교육이다.(45.9%) 즉,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정부회계 관련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방식이다.(21.8%) 자격증이 교육훈련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는 수년 전에 (가칭) 정부회계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답보 상태이다.

〈표 5〉 선호하는 교육방식

응답항목	유효응답자수 (복수응답)	백분비
일정기간 집체교육	61명	45.9%
정부회계 관련 자격증	29명	21.8%
온라인 교육	21명	15.8%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파견교육	14명	10.5%
헬프 데스크 운영	6명	4.5%
기타	2명	1.5%
합계	133명	100.0%

이 밖에 온라인 교육도 상당히 선호되는 교육방식인데(15.8%), 이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편리성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헬프 데스크를 통해 Q&A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습득 방식은 별로 선호되고 있지 않다.(4.5%)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담당공무원을 일정기간 동안 파견하여 전문적인 회계교육을 받는 방안도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지 않고 있다.(응답자의 10.5%만이 호응)

4. 맺음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재정투명성 향상에는 기여하는 단계에 도달하였으나, 이 정보를 활용하여 관리 목적에 응용하기에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이는 다른 실증 조사 결과(예, 정미숙: 2009)와도 일치하고,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고관리층의 관심사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응답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최고관리층의 관심과 지식보다는 담당공무원들의 회계지식을 더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집체교육을 많이 받아 왔지만, 그럼에도 아직 본인들의 회계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규로 복식부기 업무에 보임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몰입식 회계(집체)교육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리회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가준칙을 수립한다든지, 사업별 예산 및 결산을 강화한다든지, 중간결산제도(또는 결산추정치 산출) 등을 통해 결산정보가 예산편성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공인회계사들에게 결산검토 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도 책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관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논리 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를 발굴하여 흔히 말하는 Killer Applications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추진이 중단되어 있다시피 한 (가칭) 정부회계사 자격증 제도의 신설도 재추진하여,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 배득중. 2009.5. 사업원가와 성과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이해문. 2009.5. 자치단체 재무회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년 춘계 세미나 발표논문
- 정미숙. 2009.5.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년 춘계 세미나 발표논문 

